

연변 지역의 조선족과 한족 및 한국 아동의 기질 비교*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Among Korean-Chinese, Chinese in Yanji and Korean Children*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 전공
교수 박혜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연구원 박민정

Dept.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Professor : Choi, Hyewon Park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hee University
Researcher : Park, Min-J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among Chinese, Korean-Chinese, and Korean children. Subjects were 1,046(258 Korean-Chinese, 290 Chinese, and 498 Korean) 4th graders from Yanji in China and Seoul and Ulsan in Korea. The short form of the Early Adolesc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Scale-Revised containing 10 scales of 54 items was translated into Korean for Korean and Korean-Chinese children and into Chinese for Chinese children and was administered to children via home-room teachers.

Chinese children rated themselves higher on activation control, attention, and pleasure- and perceptual-sensitivity subscales than other groups. On the contrary, Chinese-Korean children rated themselves higher on the affiliation subscale and Korean children rated themselves higher on the aggression subscale than other groups. There were larger gender differences among Chinese and Korean-Chinese than among Korean

Corresponding Author: Min-Jung Park, College of Ecology, Kyung hee University, Hoeki 1-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82-2-959-0640 E-Mail: mjphur@yahoo.co.kr

* 이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3-072-HM2001).

children: Gender difference was found in activation control, aggression, and attention subscales among Chinese children and in affiliation, aggression, attention and fear subscales among Korean-Chinese. There was on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leasure sensitivity among Korean. Rapid westernization in Korea seems to be responsible for this result. Sinc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emperament between Korean and Korean-Chinese, and between Chinese and Korean-Chinese, it was interpreted that children's temperament is influenced by both their environment and genetic endowment.

주제어(Key Words): 조선족(Korean-Chinese), 한족(Chinese), 한민족(Korean), 4학년(4th graders), 기질(temperament), 아동기질검사지(EATQ-R)

1. 서론

기질은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Thomas, Chess, & Birch, 1968),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예측하게 해 주며, 일생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에서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천적인 특성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질에 대한 환경이나 문화집단의 영향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동 발달에 대한 최근 연구는 아동이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발달하고,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기질 또한 동일한 과정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원영미, 박혜원, 이귀옥, 2004; Shaffer, 2000; Thomas & Chess, 1980).

아동의 발달은 발달의 주체인 아동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 설명되는 데 Bronfenbrenner (1979)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은 가정, 또래, 지역사회, 그리고 아동이 속해있는 문화 등이 있다. 가정환경 중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특정한 기질과 관련성이 있고(문혁준, 2000; 천희영, 1993; 최연희, 2001; Scott, 2003; Simonds & Simonds, 1982), 양육행동과 문화적 가치는 매우 안정적인 편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와 아동이 속해있는 특정한 문화집단의 가치를 반영하고, 동일한 문화권내에서 부모들은 대체로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문화집단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행동을 하도록 자녀를 양육한다. 따라서 아동은 결국 그 문화권에서 선호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Kohnstamm, 1989). Caudill과 Frost(1972)는 문화와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미국 부모는 외적사건으로 영아의 관심을 돌림으로써 달래기를 시도하고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 표현을 자극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일본 부모들은 아동을 혼드는 등의 직접적인 방식으로 아동을 달래는 시도를 한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 양육행동은 다시 아동의 기질 발달에 영향을 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기질과 아동이 속해있는 개별 문화집단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에 진행된 연구들(Ahadi, Rothbart, & Ye, 1993; Rothbart, Ahadi, Hershey, & Fisher, 2001)은 문화집단간의 기질의 평균과 편차에서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미국 아동과 중국 아동의 기질 차이를 연구한 Ahadi와 그의 동료들(1993)에 따르면, 미국 아동이 중국 아동보다 긍정적인 측면의 기질 특성이 더 높고, 부정적인 측면의 기질 특성이 더 낮다고 보고한다. 일본 아동의 경우도 미국 아동보다 더 위축되고, 긍정적인 정서를 덜 표현하고 규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Windle, Iwawaki, & Lerner, 1988) 이러한 문화집단간의 차이는 다른 국가가 아닌 동일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있는 다른 민족적 집단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국계 미국 아동들은 유럽계 미국 아동들보다 더 내성적인 것으로 평가된다(Kagan, Kearsley, & Zelazo, 1978).

그러나 비교문화적인 기질 연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동일한 기질이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행동 통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긍정적인 특성으로 보지 않지만, 사

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기질 특성으로 간주되고, 수줍음의 경우에도 미국과 동양 사회에서 그 평가가 다르게 나타난다(Rubin, 1998). 그리하여 중국사회에서는 행동통제가 잘 되고 수줍고 조용한 아동들이 교사와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한다(Ho, 1986; Ho & Kang, 1984). 또한 Ahadi와 그의 동료들(1993)은 미국과 중국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질 평정을 비교하여 두 집단의 전반적인 평가 기준수준(anchoring point)이 달라 7점 리커트 척도에서 미국은 평점이 4.61점, 중국은 3.65점으로 차이가 있음을 밝히면서 문화간 차이 해석시 유의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문화연구들은 대체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간주되는 “서양”과 집단주의 성향으로 간주되는 “동양” 문화에 대한 비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Abe & Izard, 1999; Ahadi et al, 1993). 최근 Russell, Hart, Robinson과 Olsen(2003)은 미국과 호주 아동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에서, 동일한 서양문화권이고 사상적인 체제도 유사한 미국과 호주의 경우에도 기질에서의 차이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또한 Leung, Lau와 Lam(1998), Bornstein과 그의 동료들(1998)의 연구에서도 아동 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사한 문화권내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보고한다. 마찬가지로 최근 연변 조선족 유아와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한 원영미 외 2인(2004)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유교문화권인 두 집단에서 기질의 차이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비록 동일한 유교문화권이라는 문화적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사회적 체제가 다른 중국과 한국, 그리고 동일한 국가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민족적 뿌리가 다른 한족과 조선족, 그리고 동일한 민족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나 거주 환경의 차이가 나타나는 조선족과 한국의 아동 사이에서도 기질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 외에도 기질에 대한 연구는 성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othbart, 1988). 분노와 좌절, 그리고 수줍음과 같은 기질적 특성들은 동일한 문화권내에서도 사회적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남아와 여아의 경우에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된다(천희

영, 1993). 그러나 Russel과 그의 동료들(2003), Gartstein, Slobodskaya와 Kinsht(2003)의 연구에서는 남녀의 기질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경우는 기혼 여성의 다수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아직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집단간의 기질에서의 남녀 차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아동과 함께 동일한 유교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념과 사상이 다른 사회 환경과 제도 속에 살고 있는 연변의 한족 아동과 동일한 민족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연변의 조선족 아동의 기질을 국가, 민족, 성차에 따라 비교함으로써 선천적인 개인차라고 인정되고 있던 기질이 환경에 의해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 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조선족, 한족, 그리고 한국 아동 간에 기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조선족, 한족, 그리고 한국)의 성에 따른 기질의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대상 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주도인 연길시 소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258명, 연길시 한족 소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290명, 그리고 한국의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498명이다.

조사 대상 조선족, 한족, 그리고 한국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세 집단 아동의 부모의 연령은 조선족과 한족의 경우 30-40세 미만이 가장 많았으나, 한국 아동의 부모는 40-50세 미만이 가장 많고, 모의 연령은 세 집단 모두 30-40세 미만이 가장 많았다. 부모의 학력은 세 집단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고, 월평균 수입은 화폐단위와 경제수준에

〈표 1〉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인		빈도(%)		
		연변조선족	연변한족	한 국
부나이	30세 미만	0(0.0)	1(.04)	1(0.2)
	30-40세 미만	145(62.0)	196(83.8)	163(37.3)
	40-50세 미만	85(36.3)	36(15.4)	263(60.2)
	50세 이상	4(1.7)	1(0.4)	10(2.3)
모나이	30세 미만	0(0.0)	0(0.0)	2(0.5)
	30-40세 미만	202(84.5)	219(92.8)	327(75.2)
	40-50세 미만	36(15.1)	17(7.2)	105(24.1)
	50세 이상	1(0.4)	0(0.0)	1(0.2)
부학력	초중(중졸) 이하	23(9.7)	41(17.4)	11(2.5)
	고중(고졸) 이하	103(43.3)	92(39.1)	246(56.0)
	전과(전문대졸)	46(19.3)	52(22.1)	60(13.7)
	대졸 이상	66(27.7)	50(21.3)	122(27.8)
모학력	초중(중졸) 이하	31(12.9)	53(22.5)	27(6.3)
	고중(고졸) 이하	99(41.3)	102(43.2)	297(69.1)
	전과(전문대졸)	71(29.3)	50(21.2)	54(12.6)
	대졸 이상	39(16.3)	31(13.1)	52(12.1)
모직업	유 무	182(83.0)	188(86.5)	151(47.6)
		44(17.0)	39(13.5)	261(52.4)
월평균 수입	1000위안 미만 (100만원 미만)	32(14.5)	32(14.2)	11(2.7)
	1000-2000위안 미만 (100-200만원 미만)	81(36.8)	87(38.5)	75(18.7)
	2000-3000위안 미만 (200-300만원 미만)	71(32.3)	71(31.4)	160(39.9)
	3000-4000위안 미만 (300-400만원 미만)	26(11.8)	25(11.1)	82(20.4)
	4000위안 이상 (400만원 이상)	10(4.5)	11(4.9)	73(18.2)

* 문항별 무응답을 missing처리하여 빈도에 차이가 남.

따른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한국 아동의 가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과 한족 아동의 모의 경우는 대부분이 직업을 가진 반면, 한국 아동의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기질검사도구

아동의 기질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Ellis와 Rothbart(1999)의 아동용 기질 검사지 간편형

(Early Adolesc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Scale-Revised, Short form: EATQ-R 간편형)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EATQ-R 간편형은 만 9세에서 15세의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12개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6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은 특정행동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지를 아동이 “전혀 아님(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진(Cronbach α , .40이하) 억제(inhibition control)와 모험심(high intensity pleasure/surgency) 요인을 제외한 10개 요인 54문항을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54개 문항은 자기 활동통제(activation control), 친화(affiliation), 공격성(aggression), 주의(attention), 우울(depressive mood), 두려움(fear), 좌절(frustration), 기쁨예민성(pleasure sensitivity), 지각예민성(perceptual sensitivity), 수줍음(shyness)의 10개 차원으로 구성되고 각 요인별로 4-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 요인별 척도의 내용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조선족과 한족의 경우,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중순에 질문지를 연변의 조선족 및 한족 소학교 각각 1개교에 보내어 학교교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연구자들이 12월에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한국 자료는 2002년 11월 12월 사이에 서울과 울산의 초등학교 각각 2개교에서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PC+ VERS. 10을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집단간 기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질 요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각 집단의 기질 평균 점수는 국가별로 평가의 편향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거나 낮게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Ahadi와 그의 동료들(1993), Gartstein과

〈표 2〉 기질의 하위요인별 정의와 신뢰도

기 질	기질의 하위요인별 정의	신뢰도
활동통제	활동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5문항	.50
친화	타인에 대해 동정적이고 친밀하려는 욕구: 5문항	.59
공격성	사물과 사람에 대한 신체적 폭력, 언어적 공격 및 반발심: 6문항	.70
주의	주의전환이나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6문항	.45
우울	즐거움과 흥미를 상실한 불쾌하고 시무룩한 감정: 6문항	.60
두려움	미리 걱정하는 것과 관련된 불쾌한 감정: 6문항	.62
좌절	진행중인 일을 방해받았을 때 느끼는 부정적 감정: 7문항	.74
기쁨예민성	강도, 복잡성, 새로움 등이 낮은 행동이나 자극에 즐거워하는 정도: 5문항	.68
지각예민성	약하고 낮은 강도의 환경적 자극을 지각하는 정도: 4문항	.60
수줍음	새롭고 도전적인 것에 대한 행동억제: 4문항	.43
전체	54문항	.83

그의 동료들(2003)이 사용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즉, 기질에 대한 비교 문화적 연구에서 각 국가간 기질 평정시 전반적인 점수의 기준(anchor point)이 다르므로 집단별 전체 평균과 개별 기질 문항점수의 차이를 이용한 수정평정 점수를 사용하여 집단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각 집단의 평균에서 각 문항의 기질의 평정점수를 뺀 수정평정점수를 사용하여 세 집단간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조선족, 한족, 그리고 한국의 아동의 기질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수정된 평정 점수로 ANOVA를 실시하였고, S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남녀의 기질 차이 비교를 위해서는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 비교시 공격성과 우울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아동은 평균비교를 했을 때, 모든 요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질 평정 점수의 전체 평균이 연변 조선족의 경우, 3.30, 연변 한족은 3.07, 그리고 한국 아동의 경우는 2.90으로 집단 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별 평가의 편향성, 즉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거나 낮게 평가할 경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질 요인에 대한 단순한 평균비교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Ahadi와 그의

III. 결과

1. 연변 조선족, 연변 한족, 그리고 한국 아동의 기질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질의 10개 요인 모두에서 세 집단간 기질의 원점수 평균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친화, 공격성, 우울, 두려움, 좌절, 지각예민성, 그리고 수줍음의 7개 요인에서 연변 조선족 아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활동통제와 주의, 그리고 기쁨예민성은 연변 한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아동은

〈표 3〉 기질 요인별 국가/민족의 차이

원점수의 평균(표준편차)

기질 하위요인	연변조선족	연변한족	한국
활동통제	3.50(.75)	3.90(.77)	3.20(.73)
친화	3.47(.90)	3.09(.97)	2.84(.78)
공격성	2.74(.96)	1.87(.87)	2.26(.68)
주의	3.44(.71)	3.75(.64)	3.17(.59)
우울	2.88(.78)	2.06(.86)	2.61(.71)
두려움	3.52(.85)	3.17(1.05)	3.13(.83)
좌절	3.25(.93)	3.08(.98)	3.02(.84)
기쁨예민성	3.53(.92)	3.57(1.07)	3.28(.96)
지각예민성	3.53(.85)	3.34(1.05)	2.74(.86)
수줍음	3.09(.88)	2.82(1.04)	2.77(.83)
전체	3.30(.50)	3.07(.47)	2.90(.41)

동료들(1993)과 Gartstein과 그의 동료들(2003)은 기질에 대한 비교 문화적 연구에서 각 국가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질 평정시 전반적인 점수의 기준(anchoring point)이 다르므로 집단별 전체 평균과 개별 기질 문항점수의 차이를 이용한 수정평정 점수를 사용하여 집단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각 집단의 평균에서 각 문항의 기질의 평정 점수를 뺀 수정평정점수를 사용하여 세 집단간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려움과 수줍음 영역을 제외한 모든 기질의 요인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활동통제는 한쪽 아동이 가장 높고 조선족과 한국 아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40.63$, $p<.001$). 친화는 조선족 아동이 높고 한족과 한국 아동의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0.70$, $p<.001$). 공격성은 조선족과 한국 아동이 한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F=47.92$, $p<.001$), 주의는 한족 아동이 가장 높고 조선족과 한국 아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30.88$, $p<.001$). 우울수준은 세 집단 모두 다른 기질적 특성보다 낮게 평가하긴 하였으나 한족 아동이 가장 낮고 조선족과 한국 아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75.95$, $p<.001$), 두려움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좌절은

<표 4> 기질요인별 국가/민족간의 차이

수정평정점수의 평균(표준편차) 및 F값

기질 하위요인	연변 조선족	연변한족	한 국	F
활동통제	20(.87) ^a	83(.75) ^b	29(.76) ^a	40.63***
친 화	.19(.63) ^b	.03(.75) ^a	-.06(.59) ^a	10.70***
공 격 성	-.55(.82) ^b	-1.19(.81) ^a	-.65(.62) ^b	47.92***
주 의	.16(.78) ^a	.69(.77) ^b	.27(.70) ^a	30.88***
우 울	-.42(.64) ^b	-1.00(.80) ^a	-.29(.60) ^b	75.95***
두 려 움	23(.60)	.10(.81)	23(.65)	2.65
좌 절	-.04(.70) ^a	.01(.81) ^{ab}	.12(.67) ^b	3.97*
기쁨에민성	.22(.69) ^a	.49(.88) ^b	.38(.76) ^{ab}	7.07**
지각에민성	.22(.61) ^b	.28(.83) ^b	-.16(.66) ^a	34.21***
수 쥘 음	-.20(.74)	-.24(.92)	-.13(.70)	1.51

* $p<.05$ ** $p<.01$ *** $p<.001$

한국 아동이 가장 높게 지각하고 그 다음으로 한족, 그리고 조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F=3.97$, $p<.05$). 기쁨에민성은 한족 아동이 가장 높고 한국 그리고 조선족 아동의 순으로 나타났다($F=7.07$, $p<.01$). 지각에민성은 한족과 조선족 아동이 높고 한국 아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34.21$, $p<.001$). 수줍음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는 국가와 민족별 기질에서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변 조

<표 5> 국가/민족별 남녀 기질 차이

기 질	연변조선족			연변한족			한 국		
	남	여	t	남	여	t	남	여	t
활동통제	3.37(.75)	3.62(.73)	-2.71**	3.86(.81)	3.95(.74)	-.78	3.18(.72)	3.21(.75)	-.35
친 화	3.43(.87)	3.51(.92)	-.66	2.95(.98)	3.27(.95)	-2.30*	2.87(.83)	2.82(.72)	.66
공 격 성	2.91(.96)	2.58(.93)	2.74**	2.05(.89)	1.69(.80)	2.87**	2.29(.71)	2.23(.65)	.79
주 의	3.35(.65)	3.53(.75)	-2.06*	3.65(.63)	3.85(.64)	-2.03*	3.16(.58)	3.19(.61)	-.55
우 울	2.95(.79)	2.81(.78)	1.41	2.06(.83)	2.06(.88)	.02	2.57(.74)	2.65(.67)	-1.03
두 려 움	3.48(.82)	3.55(.88)	-.64	2.97(1.02)	3.40(1.01)	-2.86**	3.07(.88)	3.19(.78)	-1.38
좌 절	3.21(.94)	3.27(.92)	-.51	3.15(.99)	3.04(.99)	.78	3.01(.92)	3.03(.76)	-.30
기쁨에민성	3.48(.93)	3.58(.91)	-.85	3.48(1.08)	3.72(1.03)	-1.55	3.15(.98)	3.41(.92)	-2.58*
지각에민성	3.49(.85)	3.56(.85)	-.67	3.35(1.07)	3.37(.99)	-.10	2.75(.91)	2.74(.80)	.10
수 쥘 음	3.15(.89)	3.04(.86)	.94	2.75(1.06)	2.90(1.02)	-.96	2.73(.80)	2.82(.85)	-1.05

* $p<.05$, ** $p<.01$, *** $p<.001$

선족 아동의 경우, 활동통제, 공격성, 주의 세 요인에서 남녀 차가 나타났다. 활동통제의 수준은 연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고($t=-2.71, p<.01$), 공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t=2.74, p<.01$) 그리고 주의 수준은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06, p<.05$). 연변 한족의 경우에는 친화, 공격성, 주의, 두려움 영역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친화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t=-2.30, p<.05$), 공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t=2.87, p<.01$), 주의는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t=-2.03, p<.05$) 그리고 두려움 수준은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86, p<.01$). 그리고 한국 아동의 경우에는 기쁨에민성의 측면에서만 남녀 차가 나타났는데($t=-2.58, p<.05$), 기쁨에민성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한족 소학생 그리고 한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민족과 환경에 따라 아동의 선천적인 특성으로 간주되는 기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세 집단 아동의 기질에 대한 아동의 자기 평점 점수를 비교한 결과, 연변 조선족 아동이 친화, 기쁨에민성 및 지각 예민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의 기질에 대해서는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한족, 한국 초등학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집단이나 개별 문화집단에서의 평점 점수 사용시 문화적 편견적, 평가시 사용하는 평정 기준차이 및 특정 기질특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선호차이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기질을 연구한 선행연구(Ahadi et al., 1993; Gartstein et al., 2003)와 동일한 방식으로 각 문항의 원평정치 대신 집단의 평균점으로 부터의 차이를 산출하여 집단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두려움과 수줍음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활동통제는 한족아동이 가장 높고, 조선족과 한국 아동간에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며 한족아동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 문화권의 아동과 중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Ahadi et al., 1993)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활동통제는 전통적으로 서구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동양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기질 특성 중 하나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연변 한족의 경우 아직까지 서구 문화권의 영향을 한국에 비해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현재 서구와의 접촉이 연변 한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계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친화는 세 집단 모두 다른 기질 요인에 비해 높게 평가 한 것은 아니지만, 조선족 아동이 한족과 한국 아동의 경우보다 높았다. 이것은 현재의 조선족이 처한 환경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아동의 경우, 민족의 고유한 전통도 학습해야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에도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의 문화에만 익숙해도 되는 한족과 한국 아동보다 친화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격성은 조선족과 한국 아동이 한족에 비해 높게 지각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한민족의 아동의 공격성이 높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공격성보다 공격성 표현에 대한 차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공격성에 대한 매우 강한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문화권에서는 실제보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공격성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면, 억제되었던 부정적 측면이 대두되게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과거보다 학원폭력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실제 발생률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인정하는 측면에서의 차이일 수도 있다. 또한 공격성에도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는 바, 모든 공격성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Lai 와 그의 동료들(2000)의 연구에서도 북경의 어머니가 다원화된 사회인

홍콩의 어머니보다 공격성에 대한 억압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다.

주의는 한족 아동이 가장 높고 조선족과 한국아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또한 동양문화권에서 강조하는 성격 중 하나로 활동통제와 동일한 기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우울과 좌절은 한국 아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교육환경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교육현장이 대부분 입시 위주로 이루어져있고, 그에 대한 압박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족 아동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의 조선족의 현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가정의 경우,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중국의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부모의 다수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 자녀에 대해 과거와 같은 정도의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세계일보, 2005년 1월 1일자 기사).

기쁨 예민성은 한족 아동이 가장 높고 한국 그리고 조선족 아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지각 예민성은 한족과 조선족 아동이 높고 한국 아동이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서구화에 따른 각종 자극과 환경적 변화가 이러한 예민성에 대한 반응을 낮추는 경향을 야기시킨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두려움과 수줍음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두 요인 간에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은 학자들마다 같은 방식으로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두 요인의 경우는 선천적인 기질의 기본적 속성 중 하나라는데 동의한다(Buss & Plomin, 1984; Rothbart, 198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다른 세부적인 기질에서는 세 집단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이 두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세 문화집단이 각각 처한 환경이 국가적 차원(중국 vs. 한국)과 문화적 차원(중국 문화 vs. 한문화)에서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동양문화권의 영향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직접 아동의 발달에 따른 세 집단의 기질의 차이의 변화를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원영미 외 2인(2004)의 연구보다도 초등학교의 집단에서 집단간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기질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더욱 이해하게 해준다.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아동까지 포함하여 연령의 변화에 따른 집단간 차이의 경향을 보다 세밀히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각 문화집단 간 기질에서의 성차를 비교한 결과, 연변 조선족 아동의 경우, 활동통제와 주의 수준에서, 연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고, 공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연변 한족의 경우에는 친화, 주의 그리고 두려움 수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공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 아동의 경우에는 기쁨 예민성의 측면에서만 남녀 차이가 나타났는데, 기쁨예민성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영미 외 2인(2004)은 한국과 조선족 유아의 성별차이를 분석하여, 조선족 유아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한국의 유아의 경우에는 모든 범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즉 활기에서는 남아의 점수가 높은 반면에, 부정적 정서와 주의통제에서는 여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남아는 여아에 비해 활기차며,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표출하는 편이며, 주의통제능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소학교 이상에서는 남녀 차이가 한국보다는 중국이나 조선족에서 더 뚜렷하여 성에 따른 기질차이가 서로 다른 사회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성역할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각 문화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고정관념에 따라 변화하여 보다 남녀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소학교 아동은 점차 성차를 크게 나타내는 데 반해 보다 서구화된 한국 사회에서 남녀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청소년기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복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 볼 때, 한국 아동은 한족

아동보다 조선족 아동과 그 기질적 특성에서 유사하였고, 한족 아동 또한 한국 아동보다는 조선족 아동과 더 유사하였다. 조선족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민족적 뿌리가 같은 한국 아동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 배경이 동일한 한족 아동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는 것은 기질이 개인의 선천적인 특성이기도 하지만,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능하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하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교문화에서 동일한 동양 문화권으로 간주되어왔던 한족, 조선족, 그리고 한국 아동이 비록, 동일한 유교문화권이긴 하지만, 기질에서 차이가 나타난 점으로 볼 때, 앞으로의 동양과 서양으로 분리하여 진행되어 온 비교문화 연구에 더 세부적인 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중국에서도 극히 소집단인 연변에만 한정되어 있고, 또한 한국의 대상 아동도 한국의 전체 아동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동일한 한족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을 조사한 연구(Lai et al. 2000)에서도 지역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연변에 거주하는 한족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중국 한족 아동의 기질로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연변은 조선족 자치구이기 때문에 중국의 다른 거주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결과를 중국과 한국의 전체 아동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적인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질 척도인 EATQ-R이 Eliss와 Rothbart(199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았다. 현재까지 EATQ-R을 사용한 비교문화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와 판단은 어렵다. 하지만, EATQ-R을 사용하여 영재 아동의 기질적 특성을 분석한 최경아(2004)의 연구에서도 Eliss와 Rothbart(1999)의 연구보다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볼 때, EATQ-R자체가 동양 문화권의 아동의 기질 측정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향후 다른 기질 척도를 사용했을 경우, 본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흔히 동양권이라고 동일하게 간주되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같은 민족이지만 환경이 다른 조선족이라는 세 집단의 아동이 기질에서 유사한 점도 있으나 차이 또한 있음을 실증적으로 고찰했다는 것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연변뿐 아니라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EATQ-R을 비롯한 아동용 기질 검사척도에 대한 표준화 연구도 진행하여 보다 정확한 기질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적 편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Hart, Yang, Nelson, Robinson, Olsen, Nelson, Porter, Jin, Olsen, & Wu, 2000).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질에서의 차이만을 연구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선천적 성향으로 인식되어 온 기질과 환경과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하게 위하여 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태학적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및 인과 관계에 대한 탐색도 요구된다.

■ 참고문헌

- 문혁준(2000).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 훈육방법. 대한가정학회지, 38(6), 29-41.
- 세계일보 2005년 1월 1일 제 7면. [잊혀진 한국인들]. ① 동포사회 실태. 못 이룬 한국 꿈에 우는 한민족 이방인들.
- 원영미, 박혜원, 이귀옥(2004). 유아의 기질과 가정환경 및 유아의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 연변 조선족과 한국 유아의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311-333.
- 천희영(1993). 한국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아(2004). 영재 아동의 기질 특성 분석.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희(2001). 학령전 아동의 기질, 부모의 훈육방식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e, J. A. A. & Izard, C. E. (1999). Compliance,

- noncompliance strategies, and the correlates of compliance in 5-year-old Japanese and American children. *Social Development*, 8, 1-20.
- Ahadi, S. A., Rothbart, M. K., & Ye, R. (1993). Children's temperament in the US and China: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7, 359-377.
- Borstein, M. H., Haynes, O. M., Azuma, H., Galperin, G. M., Maitel, S., Ogino, M., Painter, I., Pscual, L., Pecheux, M. G., Rahn, G., Toda, S., Venutri, P., Vyt, A., & Wright, B. (1998). A cross-national study of self-evaluations and attributions in parenting: Argentina, Belgium, France, Israel,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62-676.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audil, W. & Frost, L. (1972). A comparison of maternal care and infant behavior in Japanese-American, American, and Japanese families. In U. Bronfenbrenner(Ed.), *Influences on human development*. Hinsdale, IL: Dryden Press.
- Ellis, E. & Rothbart, M. (1999). *Revision of the Early Adolesc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University of Oregon.
- Gartstein, M., Slobodskaya, H., & Kinsht, I. (2003).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in the first year of lif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ussi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4), 316-328.
- Hart, C. H., Yang, C. Nelson, L. J., Robinson, C. C., Olsen, R. A., Nelson, D. A., Porter, C. L., Jin, S., Olsen, S. F., & Wu, P. (2000). Peer acceptance in early childhood and subtypes of socially withdrawn behaviour in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4(1), 73-81.
- Ho, D. Y. F. (1986). Chinese patterns of socialization: A critical review. In M. H. Bond(Ed.), *The psychology of the Chinese peop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 D. Y. F. & Kang, T. K. (1984). Intergenerational comparisons of child-rearing attitudes and practices in Hong Kong. *Developmental Psychology*, 5, 186-195.
- Kagan, J., Kearsley, R. B., & Zelazo, P. R. (1978). *Infancy; Its place in human development*. New York: Wiley.
- Kohnstamm, G. A. (1989). Temperament in Childhood: Cross-cultural and sex differences.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Eds.), *Temperament in childhood*(483-508). Chichester, England: Wiley.
- Lai, A. C., Zhang, Z., & Wang, W. (2000).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in Hong Kong and Beijing Chinese families: A Compar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5(1), 60-66.
- Rothbart, M. K. (1981).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2, 569-578.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 Fisher, P. (2001). Investigation of temperament at three to seven years: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72, 1394-1408.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1), 21-39.
- Rubin, K. H. (1998).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from a cultur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11-615.
- Russell, A., Hart, C. H., Robinson, C. C., & Olsen, S. F. (2003). Children's social and aggressive behavior with peers: a comparison of the US and Australia, and contributions of

-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1), 74-86.
- Scott, A. M. (2003). Factors affecting goodness of fit in kindergarten classrooms. University of Florida. Doctoral Dissertation.
- Shaffer, D.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Belmont, CA.: Wadsworth.
- Simonds, M. P. & Simonds, J. F. (1982). Relationship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to preschool children's temperament.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2, 19-31.
- Thomas, A. & Chess, S. (1980). *The dynamics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Thomas, A., Chess, S., & Birch, H.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 Windle, M., Iwawaki, S., & Lerner, R. M. (1988). Cross-cultural comparability of temperament among Japanese and American preschool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3, 547-567.

(2004년 11월 30일 접수, 2005년 1월 13일 채택)